제7강 들뢰즈의 레닌

강사 : 정남영

* 이 강의는 들뢰즈·가따리의 『천 개의 고원』 4장 「언어학의 전제들」의 내용 중 레닌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보론으로서 첫 강의에서 요청된 변증법에 대한 비판적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I. 들뢰즈의 레닌

레닌에 대한 들뢰즈·가따리의 발언을 이해하려면 언어의 내적 정치성－좁은 의미의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언어가 그 자체로 갖는 정치적인 속성－에 대한 들뢰즈·가따리의 설명을 이해해야 한다.

1. 행동으로서의 언어

들뢰즈와 가따리는 일반적인 언어학에서 정의하는 바와는 다른 언어의 정의를 탐구한다. 그들은 언어학에서 크게 두 개로 대별되는 입장을 비판한다. 하나는 언어의 본령을 '객체'에 대한 정보의 전달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들 사이의 소통으로 보는 것이다. (양자의 경우 모두에서 언어는 '매체'medium가 된다.) 그들에게 언어는

① 일단 무엇보다도 명령어로서 정의된다.

② 명령어란 좁은 의미의 명령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단어 및 진술)가 그 자체로 행하고 성취하는 '행동'(언어행위)과 맺는 관계를 말한다. "유일하게 가능한 언어의 정의는 특정 순간에 언어 속에 작용하는 모든 명령어들, 암묵적 전제들, 혹은 언어행위들의 집합이다."

③ '행동'(언어행위)은 진술(문장)에 내재하지만, 진술과 동일하지는 않다.[1] 양자는 중복의 관계에 있다.[2]

④ '행동과 행동을 필연적으로 성취하는 진술의 중복적 복합'이 바로 언어의 새로운 정의가 되는데, 이것을 언표의 집단적 배치(collective assemblage of enunciation)라고 부른다.

2. 언어와 비신체적 변형

그렇다면 언어가 행하는 이 행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일정한 사회에서 작용하고 있는 **비신체적 변형들**(incorporeal transformations)의 집합이 바로 이

1) 『의미의 논리』에서의 들뢰즈의 논의 참조.
2) 중복은 새로운 표현이 일어나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잉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기표(signifier)는 "기호와 중복되는 관계에 있는 기호이다. 모든 기호는 기호들의 기호이다."(112면)

행동이다. 이 변형들은 비신체적이지만 그 사회의 신체들(bodies)로 **귀속**된다(attributed) 듯하다.[3] 그러나 우리는 이 신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작용들(actions)과 겪음들(passions)을 비신체적 속성을 가진 행동들(acts)(혹은 "표현된 것")로부터 구분해야 한다.[4]

들뢰즈·가따리는 피소자를 범죄자로 바꾸는 판사의 선고를 예로 들어 '행동들'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를 설명한다. 이전에 일어난 일(범죄사실)과 나중에 일어날 일(처벌의 실행)은 신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작용-겪음들이다(재산이라는 신체, 피해자의 신체, 범죄자의 신체, 감옥이라는 신체). 그러나 피소자를 범죄자로 바꾸는 것은 (판사의 선고에서 표현된 것인) 순전히 순간적인 행동 혹은 비신체적 속성이다.

.

평화와 전쟁은 아주 다양한 신체들의 상태 혹은 섞임들이다. 그러나 전면적 동원의 선언은 신체들의 순간적이고 비신체적인 변형을 표현한다. 신체들은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성숙하고 늙는다. 그러나 다수(majority), 은퇴, 나이 범주는 특정 사회의 신체들에 즉시 귀속되는 비신체적 변형들이다. "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냐"라는 진술은 그것이 비록 신체들에 적용되고 신체들의 능동적 작용과 겪음 속으로 삽입되지만 비신체적 변형에 관련된다.

비신체적 변형은 그 순간성, 직접성에 의해서, 즉 변형을 표현하는 진술과 변형이 낳는 효과의 동시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u>명령어들은 시간, 분, 초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부여되어 있으며, 지정된 시점부터 효과를 발하는 것이다</u>.

사랑은 화살에 맞은 심장, 영혼의 결합 등으로 표상(재현)될 수 있는, 신체들의 섞임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선언은 신체들(사랑받는 사람의 신체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도 포함하여)의 비신체적 변형을 표현한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신체들의 섞임이다. 예수와의 영교도 신체들의 섞임이다. 정신적인 신체들의 섞임인데, 정신적이라고 해서 덜 '실재적'(real)이지는 않다. 그러나 빵과 포도주의 신체가 예수의 신체와 피로 변형되는 것은 신체에 귀속되는 진술에서 순수하게 표현된 것이다. 비행기 납치에서 권총을 휘두르는 납치자의 위협은 분명 능동적 행동이며 만일 인질의 처형이 일어난다면 이도 그렇다. 그러나 승객이 인질로 바뀌고 비행기라는 신체가 감옥이라는 신체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비신체적 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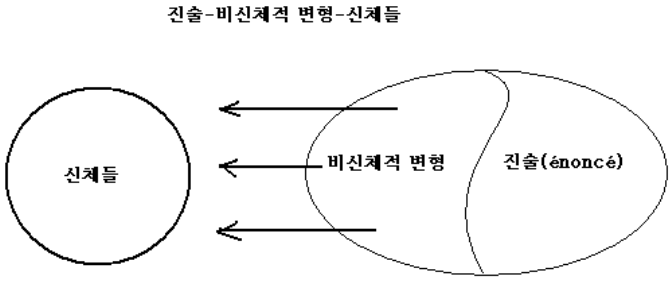
특정 사회에서 명령어들, 혹은 <u>언표의 배치들</u>은 진술과 비신체적 변형 사이의 (혹은 진술이 표현하는 비신체적 속성들 사이의) 이 순간적인 관계를 지칭한다.

★ 크로노스의 시간과 아이온의 시간— 신체적 변형과 비신체적 변형이 함축하는 두 종류의 시간

---

3) 여기서 들뢰즈·가따리는 "신체"라는 말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정신적 신체들도 있다. 예컨대 영혼들은 신체들이다.

4) 능동적 행동들actions과 겪음들passions은 스피노자에게서 온 개념이다. 어떤 몸이 자신 혹은 다른 몸들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이 될 때 그 몸은 '능동적 행동'(action)을 행한 것이며,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이 다른 몸들일 때 이를 '수동적 겪음'passion이라고 한다. 앞으로 'act'와 구분하기 위해서 'action'은 '능동적 행동'으로 옮기기로 한다. 'passion'은 혼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냥 '겪음'으로 옮기기로 한다.



정리 : 변형은 신체에 귀속되지만 그 자체는 비신체적이며, 언표에 내재적이다. **언어와 외부 사이에 관계를 수립하되 그것이 언어에 내재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표현의 변수들이 존재한다. 명령어가 바로 단어를 그러한 언표로 만드는 변수이다. 명령어는 그 순간성, 그 즉각성으로 인하여 변형이 귀속되는 신체들과 관련된 변이의 힘을 부여받는다.

3. 비신체적 변형의 관점에서 본 언어는 내적으로 정치적이다

언어를 행위의 관점에서 본 연구를 언어행위론(speech act theory) 혹은 화용론(pragmatics)이라고 부른다. 들뢰즈·가따리는 이를 언어의 정치학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 모범적 사례로서 독일의 사회적 장에서의 나치(Nazi)의 진술들의 구성에 대한 장 피에르 파예(Jean-Pierre Faye)[5]의 연구를 든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명령어의 변이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적 몸들에 연결되어 있고 내재적 행동을 발하는 비신체적 속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들뢰즈·가따리는 다른 조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예로서, 레닌의 "슬로건에 관하여"(1917)라는 텍스트에 기반을 하여 쏘비에트 러시아에서의 고유하게 레닌주의적인 유형의 진술이 형성된 것을 든다. 이 텍스트는 프롤레타리아가 하나의 신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생기기 **이전에** 대중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언표의 배치로서 도출해낸 비신체적 변형을 구성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계급을 "창안해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1 인터내셔널로부터 나온 천재적인 솜씨였다.[6]

레닌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의 결별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면서 또 하나의 비신체적 변형을 창안 혹은 포고하였는데, 이 비신체적 변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부터 전위를 언표의 배치로서 도출하였으며,
관료 특유의 중복(redundancy)의 체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당>(Party) 즉 뚜렷한 신체로서의 당의 새로운 유형에 귀속되었다.
레닌은 "모든 권력을 쏘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은 혁명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간인 2월 27일에서 7월 4일까지만 유효하고 전쟁상태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평화에서 전쟁으로의 이행은 대중으로부터 지도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프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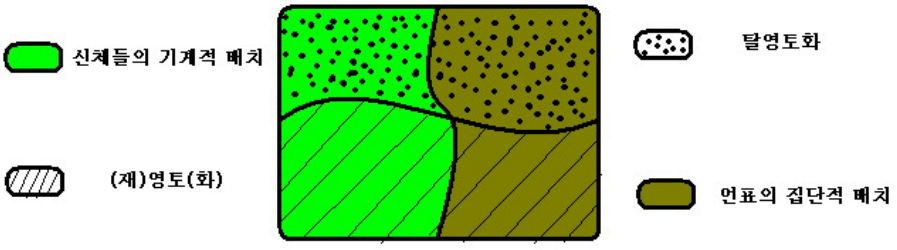
5) Jean-Pierre Faye : 1925년 7월 19일 파리생.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 및 산문시 작가. 전위적 문학평론지인 『텔 껠』(*Tel Quel*)과 『체인지』(*Change*)의 창립멤버이다. 질 들뢰즈의 문학 잡지인 『키메르』(*Chimère*)의 고정 기고자였다. 데리다와 함께 「블루 리포트」("Blue Report" [불어] *Le rapport bleu*)를 썼는데, 이는 1983년 개방 대학인 the Collège international de philosophie를 탄생시켰다. *Théorie du récit* 와 *Langages Totalitaires*를 포함한 그의 논문들은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한 언어의 사용과 오용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연구들로 남아있다. (from *Wikipedia*)

6) [원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개념 자체가 이 문제에 달려있다. 프롤레타리아는 일정한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신체로서 존재하는가? (혹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맑스주의자들이 이 개념을, "맹아적 프롤레타리아"를 말할 때처럼, 미래를 기대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다.

타리아로부터 지도적 전위로의 전환을 함축하였다. **7월 4일에 정확히** 쏘비에트 권력은 종료되었다. 모든 외적 상황들 ―레닌으로 하여금 핀란드로 도망가게 한 봉기뿐만 아니라 전쟁 등 ―이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비신체적 변형이, 그것이 해당되는 조직 즉 <당> 자체의 성립 이전인 7월 4일에 언표되었다는 사실은 남아있다. "모든 개별 슬로건은 확연한 정치적 상황의 특수한 측면들의 총체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슬로건에 관하여」)

만일 이 특수한 측면들이 정치에 속한 것이지 언어학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가 나온다면, 정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언어를 안으로부터 작동시키는지, 그리하여 어휘뿐만 아니라 구조 및 모든 어구적 요소들로 하여금 명령어가 변함에 따라 변하게 만드는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일정 유형의 언표는 화용론적 함축된 것의 기능으로서만, 바꾸어 말하면 암묵적 전제들, 내재적 행동들 혹은 ― 언표에 의하여 표현되고, 신체들의 새로운 배열을 도입하는 ― 비신체적 변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 진정한 직관은 문법성의 판단이 아니라 언표의 내적 변수들을 상황들의 총합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정리>
― 실재를 구성하는 두 차원: 잠재적인 것(the virtual, 비신체적 변형)/현실적인 것(the actual, 신체적 변형)
― 이 두 차원 중 잠재적인 것이 더 우선적이다.
― 레닌의 혁명가로서의 탁월함을 비신체적 변형을 창안하는 데서 본다. 예컨대 레닌의 실천의 '변증법적 성격'을 주장하는 루카치와 초점이 다르다. 비신체적 변형의 혁명가, 아이온의 시간의 혁명가!
― 들뢰즈·가따리의 '배치'(agencement, 실제의 최소 단위) 개념



<보완설명> 명령어와 통과어(password)

명령어는 죽음과 탈주라는 두 측면을 갖는다. 명령대로 따르는 것은 죽음이고, 거역하는 것은 탈주이다. 언어 속에서 권력은 명령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한다. 명령어 속에서, 삶은 도망감으로써가 아니라 탈주로 하여금 행동하고 창조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대답에 대답해야 한다. 명령어 아래는 통과어(password)가 있다. 통과하는 단어들, 통과(이행)의 구성요소인 단어들. 반면에 명령어들은 정지를 표시하거나 조직되고 지층화된 구성물을 표시한다. 단일한 사물이나 단어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서의 구성물들을 통과(이행)의 구성요소들로 변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이 통찰을 레닌적 <당>에 적용해 보기.

참고 : 네그리에게서 삶정치와 언어

“언어라는 공동장소는 사건들의 집합장소로서 정의될 것이다.”(『혁명의 시간』)

“언어는 결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보철이며 진리의 프락시스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소음들로 이루어진 무의미한 표면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단자들의 연합이 일어나는 평면(plane)이며, 존재를 공통적 술어를 통해 산출하는 힘들의 유물론적 직물이다.”(『혁명의 시간』)

“존재는 이제 전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었다. 우리는 공통적인 것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공통적 존재는 ‘언어적 존재,’ ‘주체성의 생산으로서의 존재,’ ‘삶정치적 존재’라는 세 규정 아래 등장한다.”(『혁명의 시간』)

“언어는 더 이상 표현의 형식일 뿐인 것이 아니다. 언어는 인간적인 것과 그 환경을 생산하는 유일한 형식이다. 이렇듯 언어는 공통적 존재의 존재양태이다.”(『혁명의 시간』)

“공통적인 것은 곧 생산이다. 그리고 생산되는 모든 것은 공통적인 것과의 관계 속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그런데 생산은 언어적 행동들의 다중, 카이로스의 단자들의 다중으로 구성된다. 이는 존재의 가장자리에서 스스로를 노출하는 까닭에 공통된 이름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한다. 주체성의 생산은 특이한 혁신들의 네트워크에 의미를 부여한다. 주체성의 경험은, 만일 존재가 언어라면 언어적 생산은 언어의 생산하는 힘－즉 생산력의 생산－에 다름 아님을 인식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혁명의 시간』)

“따라서 주체성은 우리가 언어라고 정의하는 ‘외부’ 앞에 놓여져 있는 내부가 아니다. 그것은 언어처럼 또 하나의 공통적 존재양태에 다름 아니다. 주체성의 생산 즉 욕구, 어펙트(affect), 욕망, 행동, 테크네(techné)의 생산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니, 언어가 주체성인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것 또한 언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혁명의 시간』)

“실제로 다중은 마치 언어처럼 조직되어있다. 언어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차이들에 의해 규정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모두 함께 기능한다. 언어는 받아들여진 규칙들에 따라 무한한 수의 가능한 방식들로 조합되는 의미들의 유동적인 망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수한 표현은 언어적 요소들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들의 생산이기도 하다. 표현은 사건에 이름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현이 언어로부터 나타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결정은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건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중으로부터 나타난다. 하지만 언어적 표현을 위해서는 표현에 언어를 사용하는 분리된 주체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유비가 갖는 한계이다. 언어와는 달리 다중은 그 자체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마치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같기 때문이다.”(『다중』)

II. 변증법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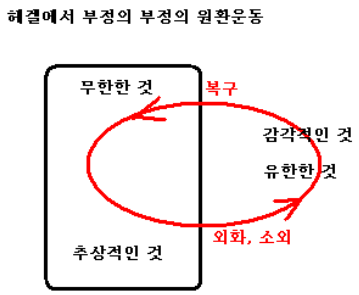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 「루카치의 레닌」 강의에서 루카치가 변증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① 구체적인 상황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편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한다.
② 상황의 새로움 속에서 이전의 사태전개와 연결시키는 것을 본다.
③ 역사적 발전의 법칙들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산출되는 새로운 현상들을 관찰한다.
④ 전체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본다.
⑤ 역사적 필연성 속에서 능동성의 계기를 발견하고 능동성 속에서 역사적 필연성과의 연관을 발견한다.

이는 비교적 무난하게 여겨지는 설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전의 사태전개," "법칙들")이 '부정'되기보다는 '보존'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루카치의 설명이 국가권력의 획득에 성공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실현하였다는 의미에서의 레닌의 혁명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당장 들뢰즈·가따리가 말하는 레닌과 비교해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의 사례들을 몇 개 더 살펴보기로 하자.

1. 「1844년 경제철학수고」에 나타난 맑스의 헤겔 변증법 비판



헤겔변증법에 대해 유일하게 진지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포이에르바하의 헤겔 변증법에 대한 비판적 설명은 이렇다.
헤겔은
① 실체의 소외(무한한 것, 추상적으로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부정
② 무한한 것을 지양하고 실제적이고 감각적이며 유한하고 개별적인 것을 정립한다(종교와 신학의 지양으로서의 철학).
다시 부정
③ 다시 긍정적인 것(the positive)을 지양하고 추상적인 것, 무한한 것을 복구한다. 종교와 신학의 복구이다.

헤겔은 부정의 부정을 그 안에 내재한 긍정적 관계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유일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한 부정적인 관계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의 유일하게 진실한 행동이자 자연발로적인 행동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운동의 추상적이고 논리적이며 사변적인 표현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는 아직은 주어진 주체로서의 인간의 **실재적인** 역사(the *real* history of man)가 아니며 창조의 행동일 뿐이고, 인간의 기원의 역사일 뿐이다.[7)]

순수한 사변적 사상에서 시작하여 절대적 지(absolute knowledge)로 끝나는 헤겔의 『대논리학』은 철학적 정신의 **본질**의 자기대상화, **전시**일 따름이다. 그리고 철학적 정신이란 자기 소외된 상태에서 사유하는—자신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는—소외된 정신에 다름 아니다. 논리란 – 그 본질은 모든 실재적인 규정들에 전적으로 무관심한 것이다 – 소외된 사유이다. 따라서 자연으로부터 추상하고 실재적 인간으로부터 추상하는 사유 즉 추상적 사유이다.(330)

따라서 헤겔에게서 부정의 부정은, 사이비 본질(Scheinwesen)의 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정한 본질의 확증이 아니다. 그에게서 부정의 부정은 사이비 본질의 확증이다. 혹은 자기 소외된 본질의 확증이다. 헤겔은 이 사이비 본질이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화된 본질임을 부정하며, 이 사이비 본질을 주체로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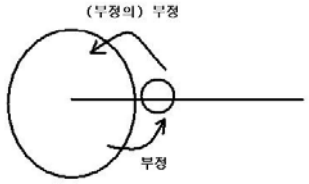
'부정'의 추상성
헤겔은 인간을 자기의식과 동등한 것으로 정립하였으므로, 소격화된(emtfremdete, 낯설게 된, 타자가된) 대상은—인간의 소격화된 본질적 실재는—의식 즉 소외에 대한 사유일 따름이며, 소외의 추상적이며 따라서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표현이 부정이다. 그러므로 소외의 지양은 마찬가지로 그 공허한 추상을 다시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지양한 것인 부정의 부정이다. 자기대상화의 풍부하고, 살아있고, 감각적이며 구체적인 활동은 따라서 그 단순한 추상인 절대적 부정으로 환원된다. 이 추상은 다시 그 자체로 고정되어서 자립적인 활동으로, 순순한 활동으로 간주된다. 이 이른바 부정성은 살아있는 현실적인 행동의 추상적이고 공허한 형식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모든 내용으로부터 추상에 의하여 산출된 형식적 내용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 결과로 얻는 것은 모든 내용에 관련되는—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무차별적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내용에 다 타당하게 되는—추상의 일반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형식들이다. 즉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정신과 자연으로부터 뜯어낸, 사유의 형식들 혹은 논리적 범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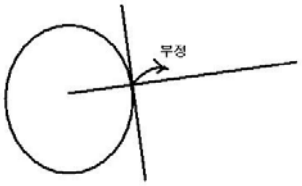
2. 변증법에 대한 들뢰즈의 견해

from *Difference and Repetition* (『차이와 반복』)

---

7) "창조의 행동일 뿐이고, 인간의 기원의 역사"란 이른바 창조설－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초월적 존재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가리키는 어구이다. 『경철수고』에서 맑스는 약 두 페이지에 걸쳐서 창조설을 비판한다. 스피노자는 신을 '창조자'로서 즉 어떤 탁월한 존재로 보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비판하는 데, 신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지 맑스와 스피노자 모두가 자연과 인간의 내재성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맑스는 인간의 자기창조를 긍정한다. "자립적 생성(generatio aequivoca, spontaneous generation)만이 창조설에 대한 유일하게 실천적인 반박이다."





① 의미(sense)는 문제 자체에 위치하고 있다. 의미는 복합적 주제 속에서 구성된다. 그러나 복합적 주제는 진술들이 그 응답의 요소들과 해답의 경우들로서 복무하는 문제와 질문의 집합이다. (...) 의미 혹은 문제가 진술의 외부에 있다는 점 즉 모든 진술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보지 못하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 즉 사유행위의 생성과 사유능력의 작동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변증법이란 문제와 질문의 예술이며, 문제들 그 자체의 조합 혹은 미분이다. 그러나 변증법이 문제들을 명제들로 소급시키는 데 만족한다면 그 특유의 힘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변증법을 부정적인 것의 힘 아래 놓은 긴 전도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다.

② 지양(Aufheben)이 갖는 모든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화'이다. 실로 변증법적인 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무한한 원은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의 중심만을 갖는다. 그것은 자체 내에 모든 다른 원들을, 모든 다른 일시적 중심들을 가지고 있다. 변증법적인 것의 반복은 총체를, 모든 형식들과 계기들을 거대한 <기억> 내에서 보존하는 것만을 표현한다. 무한한 재현이란 보존하는 기억이다. 이 경우에 반복은 저장고일 뿐이며, 기억 자체의 힘일 뿐이다. 원환적인 변증법적 선택이란 것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무한한 재현 속에서 보존되는 것—담지하는 것이자 담지되는 것—에 항상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선택은 역방향으로 작용하여 원을 비틀고 기억의 투명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자비하게 제거한다. 담지자와 담지되는 것은 무한한 재현 속에서 마치 동굴의 그림자와 같이 부단하게 들락날락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증법 특유의 힘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③ 문제들은 항상 변증법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이 문제 형태의 <이데>[8]와의 친밀한 관계를 '잊을' 때마다, 문제들을 명제들로 소급하는 데 만족할 때마다 변증법은 그 진정한 힘을 잃으며 부정적인 것의 힘에 지배된다. 그리하여 문제적인 것이 사유에서 갖는 객관성 대신에 대립하고 반대되고 모순적인 명제들의 단순한 대치를 필연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래된 왜곡은 변증법 자체와 함께 시작하며, 헤겔주의에서 극단적 형태를 띤다.

④ 헤겔에서 모순개념은 차이를 극한까지 밀고 가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길은 막다른 골목이라서, 결국 동일성을 차이가 존재하고 사유되는 충분조건으로 만듦으로써 동일성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동일한 것과의 관계에서만, 동일한 것의 함수로서만 모순은 최대의 차이가 된다. 도취와 어지러움은 꾸민 것이며 불명료한 것은 이미 처음부터 해명되어 있는 것이다. 헤겔 변증법에서 원들이 무미건조하게 하나의 중심만을 갖는다는 사실보

8) 들뢰즈에게서 <이데>는 사건, 혹은 특이성, 혹은 잠재적인 것(the virtual)과 거의 동의어이다. 그것이 실재에 내재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구분된다.

다 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⑤ 이렇게 변증법의 왜곡의 긴 역사가 시작된다. 이는 헤겔에서 정점에 이르며 차이와 차이생성적인 것(the differential)의 작용 대신에 부정적인 것의 노동을 채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변증법적 심급이란 이제 문제들과 물음들의 존재에 다름 아닌 (비)존재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의 존재에 다름 아닌 비존재에 의하여 정의된다. 이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형태를 띠며 부정적인 것에 의하여 산출되는 긍정의 거짓된 발생이 정립된 것(the positive)과 긍정적인 것(the affirmative)의 보완성을, 차이의 정립과 차이의 긍정의 보완성을 대신한다. (...) 역사는 부정 및 부정의 부정에 의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결정하고 차이들을 긍정함으로써 전진한다. (...) 니체가 말하듯이 좋은 것의 경우에는 긍정이 일차적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결과이거나 아니면 긍정을 복제하는 반영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띠는 이유이다. 모순은 프롤레타리아의 무기가 아니다. 오히려 부르주아지가 자신을 방어하고 보존하는 방식이며, 부르주아지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한 그림자이다.

from *Nietzsche and Philosophy*

니체에게서 하나의 힘의 다른 힘과의 본질적 관계는 본질 속의 부정적 요소로 파악된 것이 아니다. 힘은 다른 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차이를 긍정하며 이 차이를 즐긴다. 부정적인 것이 본질 속에 존재하여 그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것은 행동의 결과이며 능동적 힘의 존재의 결과이고 그 차이의 긍정의 결과이다. 개념으로서의 부정이란 "그 삶과 열정으로 가득 차있는 긍정적인 기본 개념과 비해볼 때 나중에 창안된 창백한 이미지일 뿐이다."(『도덕의 계보에 대하여』) 니체는 부정, 대립, 모순이라는 사변적 요소 대신에 긍정과 향유의 대상인 차이라는 실천적 요소를 채택한다. 니체식 경험주의. 니체가 늘 반복하는 "의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러저러한 의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의지의 목적, 동기 혹은 대상의 추구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의지가 원하는 것은 그 차이이다. "타자"와의 본질적 관계 속에서 의지는 차이를 긍정의 대상으로 만든다. "자신이 다다는 것은 아는 즐거움", 차이의 향유(『선과 악을 넘어서』).

변증법을 의지하는(wills) 의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차이를 긍정할 힘을 갖지 못한 소진된 힘이다. 더 이상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을 지배하는 힘에 반작용하는 힘이다. 이러한 힘만이 부정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다.

주인-노예 관계의 유명한 변증법적 측면은 힘이 힘에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힘의 재현으로, 우월성의 재현으로, "한 측"에 의한 "상대측"의 우월성의 인정으로 파악된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헤겔에서 의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인정되는 것, 자신의 힘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는 니체에 의하면 힘에의 의지와 그 성격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파악이다. 이는 노예의 개념이며, 원한을 가진 사람이 힘에 대하여 갖는 상이다. 노예는 힘을 인정의 대상으로만, 재현의 내용으로만, 경쟁에서 걸린 돈으로만 보며, 따라서 그것을 종국에는 기존의 가치의 단순한 적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만일 주인-노예 관계가 쉽게 변증법적 형태를

띠고, 그것이 젊은 헤겔 학도에게 원형이나 공부대상이 될 정도라면 이는 헤겔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주인의 초상이 처음부터 노예를 재현하는 초상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그의 꿈에 나타나는 바의 노예를 그리고 기껏해야 성공적인 노예를. 헤겔이 그리는 주인의 상 아래에는 언제나 노예가 숨어있다.

3. 네그리의 변증법 비판

네그리는 20대 중반 무렵 헤겔공부에 빠져 있었다. 이때 변증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이 당시에 이미 변증법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과정을 『공통적인 것을 찬양하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그것 말고는 도구가 없었다. 계속 사용은 하지만, 불만이 생기게 된다. 변증법은 가짜 열쇠이다. 모든 방을 다 열어준다. 가짜 열쇠만이 모든 가능한 문들을 열어준다. 여기에는 특이성이라는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 요컨대, 헤겔주의는 반동적이다.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반작용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반동적인 자들로부터라고 줄곧 믿게 되었다. 나를 화가 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헤겔주의를 사용하였다. 근대의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헤겔주의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내적 장애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항상 극복될 수 있는 한계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실제적인 물질성을 이런 철학적 도식으로 끌어들이기는 극히 어렵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사상의 헤게모니적 조류는 여전히 젠틸레적이었다.)[9] 안또니오 그람시는 크로체보다는 젠틸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10]

네그리는 특이성과 공통성이라는 쌍의 보완적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한다 : 보완적 관계는 변증법적 관계가 아니다. 보완적 관계는 부정을 거치지 않는다. 오히려 진공을 거친다. 카이로스를 대면하는 것은 단지 하나가 있을 뿐인데, 진공이 바로 그것이다. 이 진공에서 카이로스는 한데 모으는 것,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짓는다.

진공과 한계(경계)는 다르다. 진공은 우리가 모르는 것, 저 너머에 있는 것,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다. 진공은 매순간 존재한다. 진공은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다.[11]

변증법적 종합보다는 변형(transformation)이고 지양보다는 변신metamorphosis이다.

4. 마이클 하트 : 변증법적 부정 개념 vs. 비변증법적 부정 개념

---

9) Giovanni Gentile (pronounced [dʒo'vanni dʒen'tile]; May 30, 1875 – April 15, 1944)는 이탈리아의 신헤겔주의 철학자이다.
10) 이 대목은 텍스트의 온전한 번역은 아니면 내용를 비교적 상세히 정리한 것임.
11) 로렌스의 '미지로의 모험' 참조. '인간은 사유-모험가이다.'

- 변증법적 사상의 중심에 부정 개념이 놓여있다.
- 비변증법적 부정개념에는 마법적 힘이 없다.
- 변증법적 부정은 항상 부활의 기적을 지향한다. 지양되는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식으로 지양하는 것.
- 비변증법적 부정은 단순하고 절대적이다. 저 너머에 대한 신념이 없이, 부정은 극단적인 니힐리즘의 계기가 된다. 헤겔식으로 말하자면 타자의 죽음이다. 헤겔은 이를 순수한 죽음, 부정에 대한 추상적인 파악이라고 부른다.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부정의 절대적 성격은 끔찍하게 구체적인 적이 되었고 마법적 부활은 미신이 되었다.
- 니힐리즘의 증진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의 한 요소에 대한 인식이다. '핵-비판'
- 폭탄의 부정은 보존이 없는 총제적 부정이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만 죽음의 위협을 가하여 기존 질서를 보존하는 헤겔적 의미의 부정이 된다.)
- 세 단계가 아니라 파괴적 계기와 구성적 계기라는 두 순수하게 자율적인 계기들의 진행이다. 세 번째의 종합 단계란 없다.

<제6강 끝>